# "딸을 위해 목숨 걸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 - 탈북모녀 유지혜(가명)님의 이야기 -

4년 전, 유지혜(가명)님은 당시 5살이던 어린 딸을 안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것은 오로지 딸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고 싶었지만 남편은 남아 있을 부모, 형제들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에서 교사로 근무할 정도로 지식인이었던 유지혜님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 학원에도 다니고 있고 배움에 욕심도 있어 내년에는 야간대학 진학을 목표로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없이도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이 너무 기특하지만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유지혜님에게는 적은 수입에 비해 점점 늘어나는 교육비와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지만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밝고 긍정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이 모자에게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유지혜님이 생계비와 자녀 교육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새터민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